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26)(2/5/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2 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택들을 기억함, 1 절

창 32:10 -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시 103:1-5 -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 오, 주여, 내 마음을 여시고 나를 가르치셔서, 주의 계명들의 길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온갖 일반적인거나 특별한 은택들을 기억하고서, 주를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주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내게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지극히 작은 은총에 대해서조차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의 위엄과 존귀하심을 생각하면, 그 크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녹아내립니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세부적인 율법을 알려 주신 후에 그것을 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신 6:1-2 -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기억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신 6:6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 어느 곳에서도 강론하고, 심지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한다(신 6:6-9).

성경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한다. 신 7:17-19 - 17.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18.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가르친다. 딤후 2:8 -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도는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고 명령하셨고, 승천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요

14:24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성령님을 통한 기억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에 더해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가르친다. 다윗은 시 103 편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하면서 송축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노래했다. 시 103:1-5 -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야곱은 쫓겨나오듯이 집을 떠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베엘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창 32:10-12 -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야곱은 집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 없었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재산을 두 떼로 나눌 만큼 부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흥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는데, 믿음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들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기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낸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모든 은혜에 대한 나의 기억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크고 작은 신앙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과 되새김은 성도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모든 일을 말씀의 원칙과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묵상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며, 힘든 세상 속에서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면서 고난도 뚫고 나가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가 받은 수많은 은혜에 대한 기억은 다윗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어질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든 오늘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나를 이끈다.

우리의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고단함을 위로해 주시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와 함께 내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해 달라고, 고난 중일수록 주님을 기억하고, 갈길 몰라 방황할 수록 말씀을 기억하며, 불행감을 느끼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들고 용기와 소망을 상실할 때에 다윗처럼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하여 환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며, 비관적인 마음으로 낙관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임하며,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희망과 힘이 더해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은혜를 기억함으로 찬양과 감사와 소망과 용기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전쟁의 소문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질병이 창궐한 곳에는 치유를, 배고픔이 있는 곳에는 배부름을, 불신앙과 영적 죽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3.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들 위에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올 해도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